

		보도 자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7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미래산업과	담당자	•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석 ☎440-3101 • 담당자 이태섭 ☎440-310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희망기업에 맞춤전략 지원한다

- 중소기업 대상 '2022년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지난해 8개 업체 전문컨설팅 추진, 2개 업체 국산화 성공 -
 - 단계별 국산화 사업추진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집중 지원 노력 -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내 중소제조기업의 바이오 산업 원·부자재 제품 생산촉진을 위해 「2022년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 현장컨설팅(1단계)과 ▲전문영역 컨설팅(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바이오 제품화 전략을 위한 기본자문부터 자재 국산화 생산을 위한 품목선정 전략제시, 바이오제품 생산 시설·장비 등 품질시스템 구축, 품질검증시험 및 국내외 인증 자문 등 전문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바이오산업 컨설턴트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기업의 생산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생산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인천시는 관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와 제조기업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바이오산업 관련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을 위해, 우선 국산화가 가능한 30개 품목을 선정했다.

- *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9.12.13.)
- 인천시, 인천상의,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바이오기업 4개社(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JEN바이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을 위한 일반컨설팅 실시했다. 그 중 심사를 통해 8개 기업을 선정, 한층 심화된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특수고무와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의 2개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중 ‘에코메스’는 클린룸을 구축하고 지난 3월 24일 생산시설을 개소하는 등 일회용 세포배양백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한일화학고무공업’은 원료에 대한 인증획득을 마치고, 바이오 의약품 수요기업에 관련제품 납품을 앞두고 있다.

4월 16일까지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공고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와 인천비즈OK(bizok.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38개 내외의 컨설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매칭을 적극 주선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개척을 통해 성

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해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생산에 성공한 기업을 통해 인천시의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며 “올해도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과 별도로 예산 3억원 을 편성해 인천상공회의소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❶국산화 컨설팅 지원 ❷원부자재 생산 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❸국산화를 위한 정보 지원 추진 ❹바이오 수요기업과의 사전 협의 협력 ❺원부자재 국산화 네트워크 구축 지원 ❻생산기업과의 매칭 등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